

# 한국 고대 신중상의 의미와 효용\*

한재원\*\*

- I. 머리말
- II. 指標로서의 神衆像: 金剛力士와 四天王
- III. 場面の 지시: 十二支와 八部衆
- IV. 場所의 완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 고대 불교미술에서 金剛力士, 四天王, 八部衆 등 神들의 무리를 표현한 神衆像 연구는 그동안 주로 도상 규명과 양식 분석에 집중되었다.<sup>1</sup> 여래상이나 보살상이 교학이나 신앙과 연관되어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하면 신중상은 주로 특정한 사상이나 관점에 결부되어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20일 제61회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주제: "미술품의 유통과 소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sup>1</sup> 한국의 신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論著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충식, 『統新羅 石塔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 154·155 (1982), pp. 96-116;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1989); 허형욱, 『통일신라 석탑 부조상의 종류와 구성』,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320-329; 朴亨國 外, 『韓國의 浮彫彫態의 佛敎集合尊像(四佛·五大明王·四天王·八部衆)에 關する 總合調査』 (武藏野美術大學, 2008); 주수완, 『술도파의 작은 거인들』 (다할미디어, 2012); 한재원, 『한국 고대 신중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단순히 숭례를 수호하거나 외적을 굴복시키는 도상, 또는 護國佛敎 사상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sup>2</sup>

그러나 불상이나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신중상이 새겨진 유물 또한 근본적으로 예배자나 참배자를 위한 것이다. 종교미술의 조성은 신앙 행위 속에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신중상도 설법장에서 경배하는 예배자를 전제한 것이다. 적군이나 사된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보다는 예배나 의식 속에서 불교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전 속에서 서술되는 분위기나 느낌을 재현하려는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sup>3</sup> 이 글에서는 한국 고대 신중상은 수행이나 신앙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상황이나 場面을 드러내기 위한 지표로서 조성된 상임을 제기하고,<sup>4</sup> 이를 통해 신중상은 여느 불·보살상처럼 예배자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 즉 ‘效用’을 기대하고 조성되었던 상이었음을 밝히려고 한다.

신중상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환기하며 특정한 장면과 場所를 만들어낸다. 신중상이 보여



도 1 금강산 신계사삼층석탑 참배 장면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금강산 신계사 - 신계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2, p. 15)

주는 이러한 쓰임새는 물리적인 작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용에 가깝다. 사찰은 일상의 평범한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특수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벌어지는 특별한 영역이다 (도 1). 깨달음이나 극락왕생, 열반 등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여 수행하거나 儀禮를 행하는 종교 시설에는 고유한 규율과 생활방식이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佛殿 건축의 意匠들 역시 그 목적

2 진홍섭, 『石塔 표면의 裝飾 彫刻』, 『石塔』(중앙일보사, 1981), pp. 192-193; 장충식, 『統一新羅 石塔浮彫像의 研究』(1982), p. 97; 조원영,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역사와경계』 40·41 (2001), pp. 24-26; 임영애, 『인도와 간다라의 執金剛神』, 『강좌미술사』 26 (2009), pp. 334-348.

3 이러한 종교미술의 祭儀의 측면은 이미 서구에서 연구되었다. 한스 벨팅은 主情的 관상이미지로서 星像(icon)의 기능을 제기한 바 있다. 신준형, 『한스 벨팅의 종교미술 연구: 도상에서 기능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6 (2007), p. 102. 한국회화사에서는 불교회화, 감계화, 도교화 등의 기능을 고찰한 연구가 꽤 있지만, 불교조각사에서는 역사적·정치적 해석이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4 ‘指標(index)’는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표식을 뜻한다. 피스(C. S. Peirce)의 기호 삼분법 용어(도상-지표-상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강미정, 『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이학사, 2011), p. 152.

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sup>5</sup>

먼저 신증상의 가장 이른 조성 사례인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와 <원원사지 동서 삼층 석탑>의 사천왕상을 예시하여 '지표'로서의 신증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특정한 '장면'을 지시하는 도상으로서 石塔淨彫 십이지상과 팔부증상의 상징성에 대해 고찰하겠다. 대체로 8-9세기 신라 석탑의 부조상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천왕·주악천 등 다양한 신증상이 부조된 석등과 승탑의 사례도 선별하여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대 석탑, 승탑, 석등, 그리고 石窟庵에 부조된 신증 도상의 배치와 조합을 통해 경전의 文面에서만 존재하던 종교적·실천적 장소가 실제 寺院의 특수한 영역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指標로서의 신증상: 금강역사와 사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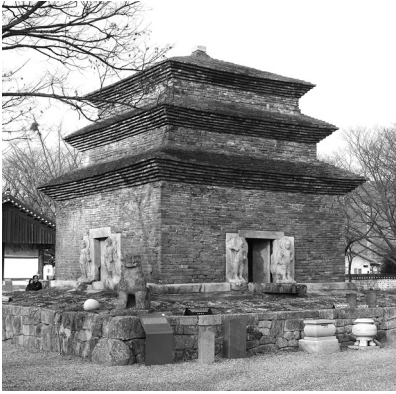
### 1. 持戒의 상징 금강역사

신라 634년 무렵에 건립된 <분황사 석탑>(이하 <분황사탑>) 탑신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금강역사상은 보통 부처를 지키거나 탑 내부에 봉안된 사리의 수호신, 또는 聖域의 상징체 등으로 이해되었다(도 2).<sup>6</sup> 비슷한 맥락에서 사천왕, 팔부중 등 <분황사탑> 이후에 조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신증상에 대해서도 당시 신라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호국불교 사상과 연관된 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신증상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찰이나 사리를 지킬 수 있다는 관념과는 별개로 <분황사탑>에서 금강역사상이 지키는 네 개의 감실 안에 사리가 봉안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석탑의 사리장엄구와 공양구는 1916년에 간행된 『朝鮮古蹟圖譜』의 기록에 따르면 1층 탑신이 아닌 2층 탑신 한가운데에 봉안된 石函에서 나왔다.<sup>7</sup>

5 이 글에서는 수호신으로서 신증이 아닌 의례의 과정에서 일하는 신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신증상이 표현된 건축 의장이 실질적 또는 심정적으로 사리나 국토 수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고 부족한 사료로 도상의 정치성을 억측하기보다는 경전에 분명하게 명시된 서사를 통해 도상의 본의에 접근하는 것이 유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6 문명대, 「新羅仁王像(金剛力士像)考」, 『불교미술』 4 (1979), pp. 101-103; 백남주, 「금강역사상의 성립과 전개」, 『미술사학연구』 208 (1995), pp. 85-86; 임영애, 「신라 불탑 塔身 부조상의 추이」, 『선사와 고대』 35 (2011), pp. 227-228; 김지현, 「신라 佛塔의 형식과 금강역사 淨彫像 연구」, 『문물연구』 25 (2014), pp. 39-40.

7 이 석함은 1915년에 이루어진 석탑 보수공사 중 탑내부에서 발견된 것이다. 朝鮮總督府, 『韓國考古資料集成① 朝鮮古蹟圖譜』 제3책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5), p. 320의 圖968·969와 圖970-973; 『朝鮮古蹟圖譜解說』 三, 위의



도 2 분황사 석탑(좌), 분황사 석탑 남면 금강역사상(우), 신라 7세기, 경상북도 경주

이런 상황에서 탑신 4면에 모두 龕室과 石門을 마련하고 그 옆에 2구씩 금강역사상을 배치한 것은 문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형식적 반복이다.<sup>8</sup> 따라서 이것은 실질적인 문이나 특정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탑의 참배자들이 사방에서 똑같은 ‘상징적인 문’을 바라보도록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을 마련했기 때문에 守門神인 금강역사를 배치했다기보다는 7세기 신라 불교 종파나 신앙에 금강역사라는 도상을 탑 사방에 마련하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었다는 말이다.

불탑은 그 형태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초기부터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존숭과 공양의 대상이 되었다.<sup>9</sup> 인도를 여행했던 중국 승려들은 불탑에 예경하는 인도 승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이를 여행기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東晉의 法顯이 399년부터 412년에 걸쳐 인도를 기행하고 썼던 『高僧法顯傳』에도 인도 승려가 머무는 곳에 사리불탑·목련탑·울경탑 등 다양한 탑이 세워져 있었고, 이 탑에 여러 꽃과 향을 바치며 밤새 燈을 밝혔다고 하였다. 또한 공양할 때는 伎樂人들을 불러 사리불 등이 부처님께 출가하려는 모습을 연출하게 했다고 기록했다.<sup>10</sup> 기행

책, p. 38 참조; 주경미,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도서출판 예경, 2007), pp. 277-297; 박대남,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분황사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pp. 39-85.

<sup>8</sup> 4면의 문이 十字形 통로에 의해서 내부로 연결되는 미륵사지 석탑과 달리 분황사 석탑은 네 감실을 잇는 통로가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p. 61의 분황사 석탑 평면도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彌勒寺址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2), pp. 42-45쪽의 평면도 등 참조.

<sup>9</sup> 이자랑, 「울장의 불탑 기술에 관한 일고찰」, 『불교연구』 43 (2015), p. 92-94.

<sup>10</sup> 『高僧法顯傳』 1권 (T.51-2085, p. 859中).

문과 문헌에 등장하는 불탑에 관한 영험담이나 설화 중에는 금강역사, 범천·제석천, 사천왕이 등장하는 예가 많다. 玄奘의『大唐西域記』 중에는 淨飯王의 요청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석가모니와 그를 시위하였던 권속들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장면에서 ‘八金剛’은 부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였던 존재로 설명된다.<sup>11</sup> 그런데 이 석가의 귀향 이야기 자체는 카필라바스투국(劫比羅伐窣堵國)의 스투파에 얽힌 불전설화로서 5세기 중엽 漢譯의『賢愚經』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다.<sup>12</sup>

분황사가 개창되었을 즈음에는 신라 교단에서 戒律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 시작은 慈藏律師(590~658)에서 비롯된다. 자장이 중국에 유학했던 시기는 638년부터 643년까지로 645년에 중국으로 돌아온 현장과 직접 교류하지는 못했지만 『대당서역기』에 실린 카필라바스투 스투파에 얽힌 ‘팔금강’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장은 주로 長安에서 수학하였으며, 終南山 雲際寺에 암자를 짓고 머물기도 하였다.<sup>13</sup> 따라서 그가 장안 인근의 龍門, 麥積山, 鞏縣, 天龍山 등의 석굴을 한 번이라도 참배했다면 당시 석굴 입구에 주로 조성되었던 금강역사상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初唐 이전 조성된 중국 금강역사상들은 北魏代 조성의 龍門石窟 賓陽中洞·火燒洞이나 鞏縣石窟의 금강역사상, 隋代 天龍山 8窟의 금강역사상처럼 어깨에 걸친 천의가 배 앞에서 X자로 교차하는 상이 많은데(도 3), 〈분황사탑〉의 금강역사상과도 형식면에서 상통한다.<sup>14</sup>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자장은 분황사에 주석하기도 했으며, 〈황룡사구층탑〉의 축성을 왕

11 “이때 여래는 대중과 함께 나가는데 팔금강이 주위를 호위하고 사천왕이 선도하며 제석천은 육계의 천인과 왼쪽에 서고 범천왕은 색계의 천인과 오른쪽에 섰으며 모든 비구들은 여래의 뒤에 줄을 섰다. 부처님만은 대중 속에 있어 마치 달이 별을 비추듯 그 위용은 삼계를 움직일 정도였고 그 광명은 칠요를 누르는 가운데 허공을 밟으면서 생국에 도착했다(是時如來與大眾俱, 八金剛周衛, 四天王前導, 帝釋與欲界天侍左, 梵王與色界天侍右, 諸苾芻僧列在其後, 維佛在衆如月映星, 威神動三界, 光明踰七曜, 步虛空至生國).” 玄奘, 『大唐西域記』 제6권 (T.51-2087, p. 901下).

12 北魏代의 『賢愚經』 波婆離品 第50 (T.4-202, p. 433下)에는 석가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금강역사·제석천·범천·비구가 차례로 따랐다는 서술이 나온다. 이에 앞서 4세기 漢譯의 『增一阿含經』 卷第22 須陀品 (T.2-125, p. 663下)에도 舍衛國 須摩提가 外道를 교화하기 위해 석가를 모셨을 때 여래의 왼쪽에 梵天王, 오른쪽에 釋提桓因과 뒤쪽에는 密迹金剛力士가 따랐고, 그밖에도 毘沙門天和 般遮旬, 天神 등이 함께 시위하였다는 서술이 보인다.

13 『續高僧傳』 권24 慈藏傳 (T.50-2060, p. 639上中); 남동신, 「慈藏의 佛教思想과 佛教治國策」, 『한국사연구』 76 (1992), pp. 10-11.

14 강우방, 「芬皇寺의 金剛力士像」,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0 (1999), p. 214에서도 北齊 또는 隋代의 상들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자장이 유학한 初唐代의 불교조각 양식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天龍山石窟 8굴의 역사상 2구(隋 開皇4년, 584)는 百橋明穗·中野徹 編,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4 隋·唐』 (小學館, 1997), pp. 118-119의 도판 참조.



도 3 금강역사상. 北魏, 中國 河南省 龍門石窟 火燒洞(좌), 賓陽中洞(우)  
 (龍門文物保管所·北京大學考古系 編, 『中國石窟 龍門石窟 一』,  
 文物出版社, 1991, 도183, 도6)

실에 건의하기도 한다.<sup>15</sup>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자장이 왕실의 부름에 응하여 국가정책에 관여하고 수많은 불사와 호국법회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장은 通度寺를 창건하고 戒壇을 설치하는 등 누구보다도 계율을 중시했던 律師이기도 했으며, 白骨觀과 같은 치열한 수행과 청렴한 생활을 실천한 수행자였다.<sup>16</sup> 자장은 또 『四分律羯磨私記』(이하 『사기』)를 찬술하여 布薩과 같은 의례의 절차를 풀이하고 이를 신라 교단에 정착시켰다.<sup>17</sup> 『사기』는 중국 南山律宗의 창시자인 道宣(596~667) 찬술의 『四分律刪補隨機羯磨』(이하 『갈마』)를 주석한 戒本으로 간주된다. 자장의 『사기』나 도선의 『갈마』는 둘 다 律宗에서 가장 중시하는 소송 율장 중 하나인 『四分律』(508년 漢譯)의 주석서이다. 따라서 『사분율』은 초기 신라불교에서 널리 읽혔던 律

<sup>15</sup> 『삼국유사』 권3 塔像4 황룡사구층탑조;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제5.

<sup>16</sup> 남동신은 자장의 白骨觀은 석가모니가 가섭에게 가르친 수행법으로서 四念處의 일종이며, 특히 『열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남동신, 앞의 논문 (1992), pp. 8-10.

<sup>17</sup> 자장의 저술 중에서 戒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분율갈마사기』 1권과 『十誦律木叉記』 1권이다. 자장의 계율정립에 대해서는 남동신, 『慈藏定律과 四分律』, 『佛敎文化研究』 4 (1995), pp. 85-101; 김영미, 『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72 (2013), pp. 225-260.

典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사분율』에는 출가자들이 탑에 대하는 규율과 설립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서술이 실려 있다. 특히 100개의 式叉迦羅尼法 중 탑의 예경법에 대해 설명한 대목 중에는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六群比丘들에게 “護塔神이 화를 내었다”는 장면이 나온다.<sup>19</sup> 『사분율』의 다른 품에서도 탑에 불경한 행위를 할 때 호탑신이 성을 낸다는 구절이 반복된다.<sup>20</sup> 이렇게 탑에 호탑신이 상주하며 비구들의 戒行을 감시하고 訓戒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구절은 금강역사상의 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사기』를 저술했던 자장에게는 이러한 구절이 매우 익숙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금강역사라는 도상을 선택하여 불탑을 호위하고 계율을 지키는 존재로서 석탑 4면에 배치할 뚜렷한 동기를 가진 이도 자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황사탑〉 동면과 남면의 금강역사상이 조각된 면석의 상단 일부는 감실 입구의 上引枋을 걸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이 깎였으며, 이로 인해 금강역사상 원형두광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처음부터 면석을 이렇게 절단하려던 계획은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 감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금강역사상을 추가 배치하면서 이 부분을 재단했을 것이다(도 2, 오른쪽 사진 하좌상). 〈분황사탑〉 감실의 상·하인방과 石門이 금강역사를 조각한 면석과 재질이 다른 것도 이러한 탑신의 改築 또는 보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듯하다.<sup>21</sup> 이 개축의 주체가 누구였든 그들은 부처의 설법을 듣거나 수행하는 과정 속의 神異와 이를 통한 종교적 공간의 신성성을 금강역사라는 지표를 통해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18</sup> 『사분율』에 관한 저술로 『사기』 외에도 현장 문하에서 筆受로 활약했던 智仁의 『四分律六卷鈔記』(10권)이 있으며, 현전하지는 않지만 智命(585년 중국 유학, 602년 귀국)의 『四分律羯磨記』와 圓勝의 『四分律羯磨記』(2권)와 『四分律木叉記』(1권), 元曉의 『四分律羯磨疏』(4권), 憬興의 『四分律羯磨記』(1권) 등이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승려들에 의해 주석서가 저술되었음을 보면 『사분율』은 신라에서 매우 중요한 율전이었을 것이다. 圓光의 『世俗五戒』도 梵網菩薩戒와 관계된 만큼 초기 신라불교의 교학은 小·大乘의 戒學이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박미선, 「『慈藏定律』조로 본 慈藏의 생애와 ‘定律’의 의미」, 『신라문화학회학술발표논문집』 33 (2012), pp. 88-93;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동국대출판부, 1989), pp. 129-132.

<sup>19</sup> 『四分律』 21권 百衆學法之三 (T.22-1428, pp. 710中-712中).

<sup>20</sup> 『四分律』 52권 雜犍度 (T.22-1428, pp. 956下, 958上).

<sup>21</sup>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說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 20권 2호 (2011), pp. 39-54에서 분황사탑은 板石을 쌓아 축조하는 인도 스투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1 (2013), pp. 191-192에서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옥계석 부분의 축조양식은 중국 양대 전탑이나 당대 이후의 전탑과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주경미, 앞의 논문 (2007), p. 291에서는 〈분황사탑〉의 사리장엄구가 隋代 불사리장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자장의 귀국 즈음에 기존에 세웠던 탑에 새로 사리를 봉안하면서 보수·증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계율은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이며, 이 계율을 정리한 수많은 율장에서는 올바른 戒行의 실천이 곧 해탈을 위한 첫 관문임을 천명하였다. 깨달음을 위해 수행해야 할 '三學'의 처음이 '戒'라는 점을 감안해도 불교에서 계율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22</sup> <분황사탑>의 금강역사상은 불교교설의 근본인 계율을 지키는, 즉 '持戒'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여러 경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05년 번역된 『大智度論』에서 마라의 세 딸인 樂見, 悅彼, 渴愛가 석가모니를 유혹하려 할 때 밀적금강역사가 계승으로써 그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sup>23</sup> 여기서 마라의 딸들은 각각 탐욕과 성냄과 욕망을 상징하므로 이들을 꾸짖는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세속적 감정이나 욕망을 금지하는 수행자의 계율을 지키는 금강역사의 역할을 표상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는 또 提婆達다가 산을 밀어 석가모니를 압사하려 했을 때 금강역사가 금강저로 이를 멀리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sup>24</sup> 계율을 범하는 '犯戒'를 상징하는 인물인 제바달다의 대척점으로서 '持戒'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금강역사이다. 이밖에 4세기말 한역된 『增一阿含經』에서도 금강역사는 外道 尼健子에게 금강저를 들고 허공에서 호통을 치는 존재로 묘사된다.<sup>25</sup>

한편 금강역사(밀적역사)가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존재를 금강저로 쳐서 티끌같이 부순다는 서술은 5세기에 번역된 2종의 『大般涅槃經』에도 보인다. 특히 15일 포살할 때 밀적역사가 '身口意業을 닦지 못한 동자'를 물리쳐서 대중으로부터 쫓아냈다고 한 부분에서는 계율을 수호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금강역사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존이시여,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포살할 때에 구족계를 받은 청정한 대중 가운데 어떤 동자가 신구의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으스스한 곳에 숨어서 몰래 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적역사가 부처님의 신력을 받아 금강저로 쳐서 그를 티끌같이 부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금강신이 가장 포악하여 그 동자의 목숨을 끊었는데, 어찌하여 여래께서 중생을 보기를 아들 라후라와 같이 한다고 하십니까?” “가섭아,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동자는 화현으로 생겼고 진짜사

<sup>22</sup> '戒·定·慧' 三學은 계율·선정·지혜의 준말이다. 삼학은 행위와 감정과 정신을 다스리는 수행법의 기본이며 보살이 수행하는 聖行으로서 간주된다. 근본 교리인 八正道 또한 삼학에 해당되는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팔정도에서 계행에 해당되는 것이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이며, 정행은 正念과 正定, 혜행은 正見과 正思惟이다. 운허용하, 『불교사전』(동국역경원, 2002), pp. 43, 426.

<sup>23</sup> 『大智度論』 권14 (T.25-1509, p. 165下).

<sup>24</sup> 『大智度論』 권14 (T.25-1509, p. 165上).

<sup>25</sup> 『增一阿含經』 권30 (T.2-125, p. 716上).

람이 아니다.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이를 쫓아내어 대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밀적금강이 그런 것을 보였다.”<sup>26</sup>

금강역사가 문 옆에 2구로 조성된 예가 많다고 해서 물리적인 영역을 지키는 수문신이라고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결과로 원인을 만드는 셈이다. 塔門이나 石窟 입구를 금강역사가 지키고 선 것은 그들이 신성한 영역을 지키는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용한 경전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율을 지키고 설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일본 나라시대 8세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東大寺 法華堂의 執金剛神像은 갑옷을 착용한 금강역사상의 드문 예인데, 법당 내에 單獨尊으로 조성되었고 예로부터 여러 가지 영험담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수문신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도 4).<sup>27</sup>

불탑의 금강역사상은 출가수행의 기본인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승려들에게 강력하고도 단호한 형상을 보임으로써 羯磨와 布薩 등 계행의 과정에서 참회의 동기를 부여하고 發心の 계기를 증대하는 상이었을 것이다.<sup>28</sup> 唐 義淨(635~713)의 『南海寄歸內法傳』에서 기술된 인도 승가의 儀禮 중에는 해질녘이나 황혼 무렵



도 4 執金剛神, 8세기, 일본 東大寺 法華堂 (奈良國立博物館·東大寺,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의 도판에서 옮김)

<sup>26</sup> “世尊. 昔十五日僧布薩時. 曾於受具清淨衆中有一童子. 不善修習身口意業. 在屏限處盜聽說戒. 密迹力士承佛神力. 以金剛杵碎之如塵. 世尊. 是金剛神極成暴惡. 乃能斷是童子命根. 云何如來視諸衆生同於子想如羅睺羅. 佛告迦葉. 汝今不應作如是言. 是童子者. 即是化人非真實也. 爲欲驅遣破戒毀法令出衆故. 金剛密迹亦是化耳.” 曇無讖譯, 『大般涅槃經(北本)』 권제3 (T.12-374, p. 380下); 같은 내용이 慧嚴譯, 『大般涅槃經(南本)』 권제3 (T.12-375, p. 620中)에서도 나온다. 북본과 남본 『대반열반경』에서는 경 전반에 걸쳐 계율에 대한 상세한 설법이 이루어진다.

<sup>27</sup> 東大寺 法華堂 執金剛神과 戒壇院의 四天王像 등에 관한 글은 倉田文作, 『東大寺の塑像』, 『東大寺 法華堂と戒壇院の塑像』 (岩波書店, 1973), pp. 2-15; 9세기 초에 게이카이(景戒)가 정리한 일본의 불교설화집 『日本靈異記』에 이 집금강신상에 얽힌 영험담이 정리되었다. 西天杏太郎, 『秘伝·執金剛神立像』,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p. 42.

<sup>28</sup> 羯磨는 수계·참회·징벌·의결 등을 하는 의식이나 행위이며, 布薩은 계가 설정된 곳에 모여 계율을 암송하는 의식으로 보통 15일마다 이행한다. 이밖에 自恣라는 계행도 있는데, 이것은 계율을 어진 접에 대해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도 5 금강역사와 門扉,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탑신 북면·서면, 8세기, 경상북도 월성

에 탑을 세 번 돌고 앉아 소리에 능한 사람에게 부처를 찬양하는 소리를 짓게 하고 계승을 여러 수 외우다가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가서 독경을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sup>29</sup> 탑 둘레에서 의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금강역사는 표면적으로는 사리의 수호신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예탑자와 마주하는 護戒神이다(도 5). 신증상은 하나의 도상이자 지표이다. 그들은 佛法과 寺域을 수호하고 절대적 존재를 侍衛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아울러 像의 顯示를 통해 ‘팔금강’이나 ‘호탑신’이 예배자에게 훈계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강역사는 문 옆에 딸린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警戒와 把守의 주체일 것이다.

## 2. 求道와 戒行의 감시자 사천왕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하 〈원원사탑〉)은 대체로 8세기 중·후반 조성의 석탑으로 파악된다(도 6).<sup>30</sup> 그러므로 〈원원사탑〉 초층탑신에 부조된 사천왕상은 신라 석탑부조 사천왕상의

<sup>29</sup> 『南海寄歸內法傳』 제4권 讚詠之禮 (T.54-2125, p. 227上). 한편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분황사 석탑 사리구에 봉안된 침통과 바늘도 선덕여왕과 왕실의 선전도구나 공물이 아닌 『四分律』 등에서 설명되는 여래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늘은 衣鉢과 함께 납입되는 여래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사분율』 권33, 권37, 권40 등에서 “여래가 의발이나 방석이나 침통을 가진다면 그것이 곧 탑(若如來有園園物房舍房舍物衣鉢尼師檀鍼筒即是塔)”이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T.22-1428, p. 798中).

<sup>30</sup>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신라사학보』 35 (2015), pp. 146-151.

가장 이른 사례가 된다(도 7). 사천왕은 세상을 보호한다는 뜻의 ‘護世四天王’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이다. 그에 따라 사천왕 형상도 대개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神將形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sup>31</sup> 그런데 삼국시대 이후 사천왕 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간주되는 『金光明經』과 『金光明最勝王經』의 「사천왕품」에서는<sup>32</sup> 오히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에게 합장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예배하며, 설법이 끝날 때는 부처 머리 위에 꽃을 뿌려 공양하는 모습으로 서술된다.<sup>33</sup>

사천왕은 병장기를 실제로 들고 싸움으로써 세상과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선정, 지혜로써 보호한다. 일부 경전에서도 사천왕의 갑옷과 무기를 자비, 삼매, 지혜, 정진, 억념 등의 추상적인 교설과 연결시킨 예들을 볼 수 있다.<sup>34</sup> 따라서 무장형 사천왕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 물론 『금광명경』은 대표적인 호국사상의 경전이므로 사천왕



도 6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8세기 중반, 경상북도 경주



도 7 사천왕상(서면),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31 한국 고대의 사천왕상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글들이 있다. 문명대, 「韓國四天王像의 研究」, 『불교미술』 5 (1980), pp. 10-55;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미술사학연구』 216 (1997), pp. 5-47; 권강미,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文物研究』 7 (2003), pp. 45-102;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2010), pp. 83-112.

32 『금광명경』은 모두 5본이 전한다. 4세기 성립한 梵本을 北涼의 曇無讖이 번역한 것이 『금광명경』 4권이고, 같은 경전을 陳의 眞諦와 後周의 闍那崛多가 더 번역하였다. 『금광명최승왕경』 10권은 唐의 義淨이 번역한 것이다. 이외에 『合部金光明經』은 隋나라 大興善寺의 實貴가 기존의 『금광명경』을 취합하여 묶은 것이다. 정승석 편,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1989), pp. 52-53.

33 『金光明經』 권2 (T.16-663, p. 340下).

34 심영신, 「사천왕 갑옷의 의미 재고」, 『미술사학보』 42 (2014), p. 126.

〈표 1〉 사천왕의 명칭과 권속

방위	범어명	音寫名	漢譯名	권속	형상·지물
동	dhṛtarāṣṭra	提頭賴吒	持國天	乾闥婆·毘舍闍	『金光明經』(금경): 합장, 右膝着地 『陀羅尼集經』(집경): 좌-칼/우-보주 『一字佛頂輪王經』(왕경): 좌-창/우-손바닥 위로
서	virūpākṣa	毘樓博叉	廣目天	龍王·富多那	금경: 합장, 우슬착지 집경: 좌-창/우-동아줄[赤索] 왕경: 좌-창/우-금강저
남	virūḍhaka	毘樓勒叉	增長天	拘槃荼·薛荔多	금경: 합장, 우슬착지 집경: 좌-칼/우-창 왕경: 좌-창/우-허리에 착수
북	vaiśravaṇa	毘沙門	多聞天	夜叉·羅刹	금경: 합장, 우슬착지 집경: 좌-창/우-보탑 왕경: 좌-창/우-금강저

의 무장한 모습 형성에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갑옷을 입고 창이나 칼, 금강저 등을 든 구체적인 형상은 오히려 후대의 초기밀교(雜密) 경전인 『陀羅尼集經』이나 『一字佛頂輪王經』 등의 서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 1).

경전 속에서 사천왕은 부처와 보살, 수행자, 중생을 보호하거나 그들에게 공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도 자주 서술된다. 예를 들어 『雜阿含經』, 『正法念處經』 등에서는 청정한 戒律을 받들어 지키도록 중생들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護戒神으로도 등장한다. 北魏代에 漢譯된 『正法念處經』에서 제석천은 사천왕을 보내어 중생들을 관찰하겠다고 선언한다.<sup>35</sup> 그밖에도 사천왕이 수행자들을 관찰한다는 내용이 같은 경에서 반복되는데, 특히 六齋日에 사천왕천들이 산 위에서 염부제의 사람들이 얼마나 계율을 잘 지키는지 살핀다는 내용이 있다.

염부제의 육재일에는 사천왕천들이 이 산 위에서 염부제를 관찰한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어떤 사람이 재일에 재계를 받들어 지키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믿으며, 어떤 사람이 악마와 싸우고, 누가 마음이 곧으며 누가 보시를 행하는가? 어떤 사람이 인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남을 괴롭히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어떤

<sup>35</sup> 『正法念處經』 권21 (T.17-721, p. 121上).

사람이 업을 믿으며, 누가 10선을 행하고 누가 착한 벗을 가까이하며, 어떤 사람이 사된 생각을 가진 외도를 떠나는가? 이렇게 사천왕은 마혜타라산에서 엄부제를 관찰한다.<sup>36</sup>

또한 5세기 번역의 『잡아함경』에서도 사천왕은 중생들이 齋戒를 잘 받들어 지키는지를 조사하며, 특히 15일이 되면 직접 세상에 내려가 중생을 관찰한다고 하였다.<sup>37</sup> 사천왕이 중생을 관찰하고 감시한다는 내용은 3세기 康僧會가 번역한 『舊雜譬喻經』이나 隋 闍那崛多的 『起世經』과 達磨笈多的 『起世因本經』 三十三天品 등에서도 보인다.<sup>38</sup> 따라서 이들 사천왕, 그리고 제석천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율과 아주 밀접한 도상으로 볼 수 있다. <원원사탑> 이후의 신라 석탑에 자주 조각되는 사천왕 도상은 참배자나 예배자들이 계율을 잘 수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존재, 재계를 받들어 지키는 호계신, 또는 불자들에게 복덕을 내려주는 초월적 조력자의 의미를 담은 상이었을 것이다.<sup>39</sup> 즉 경계하고 감시하면서 중생에게 도움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천왕상의 존재 자체가 내부의 사리를 보호한다면, 사천왕상의 시선은 외부의 참배자를 향한다. 바로 이 시선에서 신중상의 종교적 의미 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7-8세기의 감은사지 석탑 사리기 외함, 나원리 오층석탑 금동사리기 외함, 불국사 석가탑 금동사리합 등 주로 사리기에 표현되었던 사천왕상을 <원원사탑>처럼 탑신 외부에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천왕 도상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의미부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sup>40</sup> 華嚴과 密敎 등 새로운 교학의 도입에 따라 8세기가 되면 국가적으로 거행되었던 불교의례 외에도 개인적인 현세구복과 死者를 위한 追善의례 등이 성행하게 된다.<sup>41</sup> 이 과정에서 사천왕상은 탑

36 “於閻浮提六齋之日，四天王天，住此山上觀閻浮提何等衆生孝養父母隨順法行，何人齋日受持齋戒，有何人信佛法僧，有何人與魔共戰，誰行直心，誰行布施，何人不慳，誰不惱他，何人知恩，何人信業，誰行十善，誰近善友，何人信於邪見外道，如是四天王於摩醯陀羅山，觀閻浮提。” 『正法念處經』 권68 (T.17-721, p. 402上).

37 『雜阿含經』 제40권 (T.2-99, p. 295下).

38 『舊雜譬喻經』 권下(T.4-206, p. 518上); 『起世經』 三十三天品 第八之二(T.1-24, p. 347上); 『起世因本經』 三十三天品中(T.1-25, p. 402上) 등 참조.

39 비록 후대 찬술이지만 조선 전기의 『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실린 <須闍提太子傳>, <啖孝子傳>, <布施國王傳> 등에는 ‘초월적 조력자로서 제석천과 사천왕이 등장한다. 윤보운, 『佛敎敍事에 나타난 超越의 助力者의 研究』, 『한국불교문화연구』 7 (2006), pp. 131-179.

40 주경미, 「신라 중대 불사리장엄의 다양성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 pp. 270-271에서도 사리기 내면에 감춰진 사천왕 도상이 8세기 중엽부터는 호국의례나 관련 법회가 증가하면서 세상 밖(석탑 표면)으로 드러나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41 신용철은 8세기초에 전래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으로 ‘無垢淨塔’ 조성이 신라에 유행하였고 이 경전에서 설한 다라니법에 의해 탑을 돌면서 다라니를 염송하는 의례가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무구정광』에 따르면 ‘무구정탑’을 건립·중수하고 作法을 행함으로써 불자들은 극락왕생과 수명연장, 죄업소멸 등의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하



도 8 사천왕상(광목천), 奈良시대 8세기 중엽(752), 일본 東大寺 戒壇院



도 9 지국천왕/증장천왕(세부), 나라시대 8세기 중엽, 일본 東大寺 戒壇院 (奈良六大寺大觀刊行會, 『奈良六大寺大觀』2, 岩波書店, 1968의 도판 옮김)

신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에게 사리의 수호신만이 아닌 다른 의미의 존재로서 다가왔을 것이다.

나가오카 류사쿠는 일본 東大寺 戒壇院의 소조 사천왕상이 신도들이 계율을 어긴 잘못을 참회하고 그것을 통하여 소원을 비는 의례인 悔過儀禮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사천왕상 중 광목천왕의 지물인 붓과 두루마리는 중생을 감시하는 사천왕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며(도 8), 광목천왕과 다문천왕의 매섭게 멀리 지켜보는 듯한 눈빛과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의 부릅떠서 위협하는 듯한 눈빛은 모두 ‘관찰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도 9).<sup>42</sup> 이 사천왕상의 형상을 보는 신자들은 불경 학습으로 습득한 스키마(schema)에 의해 이들의 역할이 중생을 감시하는 것임을 인지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授戒儀式 등을 주로 치루는 佛殿[戒壇院]에 봉안된 상의 효용이 완성되는 것이다.<sup>43</sup> 아울러 이 상들이 배치된 공간은 의례 절차 속에서 그 종교적 본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실제 東大寺 소조 사천왕

였다.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23 (2009), pp. 360-362.

<sup>42</sup> 長岡龍作, 「悔過와 불상」, 『美術史論壇』23 (2006), p. 139.

<sup>43</sup> 이 소조 사천왕상의 戒壇院에 봉안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唐甲制를 반영한 사천왕 도상이 天平勝宝6年(754) 鑑眞의 渡日과 함께 들어왔음은 분명하다. 755년 戒壇院 낙성 공양에 맞춰 제작된 주자 문의 여러 尊像들을 옮겨 그려낸 『東大寺戒壇院廚子扇繪圖像』(12세기)에 사천왕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松田誠一郎, 「菩薩像·神將像の意匠形式の展開」, 『東大寺と平城京: 奈良の建築・彫刻』(講談社, 1990), pp. 187-188; 眞田尊光, 「日本古代の授戒와 美術」, 『불교미술사학』26 (2018), pp. 48-49.

상의 눈동자는 짙은 녹색 돌을 감입하여 제작했다고 하는데,<sup>44</sup> 아마도 여기에는 사천왕상의 시선을 위협하거나, 꾸짖고, 매섭게 감시하는 듯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수행자의 정서적·심리적 체험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 Ⅲ. 場面の 지시: 십이지와 팔부중

『삼국유사』 明朗神印條의 기록에 따르면 원원사는 安惠 등 神印宗 승려들이 주도하여 창건한 절이다.<sup>45</sup> 그런데 이 단편적인 기록만을 근거로 경주 四天王寺 건립 이후 대략 1세기 뒤에 세워진 <원원사탑>을 明朗이 행했다는 『灌頂經』의 行法(文豆婁法)과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sup>46</sup> 사천왕과 십이지 부조상은 밀교 행법과 연관된 호국적인 의미보다는 탑돌이 또는 예담 의식의 과정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sup>47</sup> 여기에서 앞 장에서 다룬 戒行의 관찰자로서의 사천왕 개념과 함께 상층기단 부조상의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원사탑>의 상층기단에는 십이지상이 조각되었다(도 10). 5세기초 漢譯된 『大方等大集經』에는 南瞻部洲 四方에 열두 짐승들(남방: 독사-말-양, 서방: 원숭이-닭-개, 북방: 돼지-쥐-소, 동방: 사자-토끼-용)이 있어서 밤낮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하늘과 사람을 공경하고 공덕을 성취하고 서원을 낸다고 서



도 10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탑신부와 기단부

44 倉田文作, 『東大寺の塑像』, 『東大寺 法華堂と戒壇院の塑像』(岩波書店, 1973), p. 11. 이러한 눈동자 감입기법은 특히 사천왕상 등 신장상 종류에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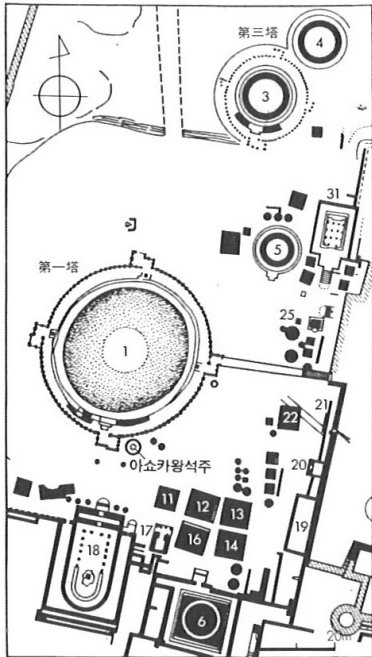
45 『삼국유사』 권5, 神呪, 明朗神印.

46 <원원사탑>의 사천왕과 십이지상의 의미를 신인종의 『금광명경』, 『관정경』과 연결하여 해석한 글로 김보형, 『統一新羅 十二支像 圖像 研究 -四天王寺址와 遠願寺 石塔浮彫를 中心으로-』, 『회당학보』 7 (회당학회, 2002), pp. 228-230; 김지현, 앞의 논문 (2010), pp. 95-96 등이 있다.

47 김보형, 앞의 논문 (2002), pp. 239-240에서도 십이지상의 배치와 오른쪽으로 향한 상들의 시선이 탑에 右繞하는 禮敬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술되었다. 특히 세존이 淨德 우바새에게 설한 대목 중에는 흰흙으로 山臺를 만들어 공양·예배하고 계을을 지키며 다라니를 외우는 행법을 취하면 열두 짐승을 보게 되고, 그러면 소원을 뜻대로 성취한다고 했다. 이는 석탑의 기단에 십이지상이 조각되는 하나의 중요한 典據로 보인다.<sup>48</sup>

일부 결실된 상이 있지만 <원원사탑> 십이지상의 시선은 북면의 丑像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른쪽을 향하였다.<sup>49</sup> 이런 상의 방향성은 가장 대표적이며 잘 알려진 지표인 화살표와 같은 일을 한다. 전통적으로 동면부터 시작되어 북면에서 마무리되는 예탑의식을 고려하면 <원원사탑>의 참배



도 11 산치유적의 禮塔路 (中村元,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84, p. 355)

자들은 먼저 동면의 寅-卯-辰상을 보게 되고 다음 남면으로 넘어가서 巳-午-未상, 그리고 서면에서 申-酉-戌상을 마주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북면의 亥-子-丑상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십이지상은 右繞佛塔의 방향인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탑돌이가 마무리되는 북면의 尙좌상, 즉 요탑이 시작되는 東面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丑像만은 두 탑에서 똑같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표 2). 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십이지상의 시선에 변화를 줌으로써 예탑의식(탑돌이)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局面을 가리킨 것이다.<sup>50</sup>

탑돌이의 절차가 동쪽에서 시작되는 것은 인도 초기 불탑인 <산치대탑>의 예탑로가 동쪽에서 진입한다는 사실로도 짐작되며(도 11), 간접적이지만 『대일경』 등 후대 밀교 경전에 나오는 만다라작법도 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를 거쳐 북쪽에서 마무리한다는 절차가 서술되는 것으로 보아<sup>51</sup> 동-남-서-북의 순서로 의식이나

<sup>48</sup> 『大方等大集經』 제23권 虛空目分 淨目品 (T.13-397, pp. 167中-168中); 『대방등대집경』 1 (동국역경원, 1992), pp. 639-642.

<sup>49</sup> 다만 여섯 짝 지지인 뱀상[巴像]은 두 탑에서 모두 결실되어 시선의 방향을 알 수 없다. 본고의 (표2)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Ⅲ』 (2009), p. 247, p. 267의 입면도 참조.

<sup>50</sup> 반면 9세기 조성 영양 현리 삼층석탑, 현일동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하층기단의 십이지상은 그 시선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시선 표현에 어떤 특정한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재원, 『한국 고대 신중상 연구』 (2018), p. 170.

<sup>51</sup> 『대일경』 권1 入漫荼羅具緣眞言品の 만다라 작법절차도 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서를 거쳐 북쪽에서 마무리한다고 서술되었다. 善無畏·一行 譯,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권1 (T.18-848, p. 6中).

〈표 2〉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십이지상 배치와 시선방향

	원원사지 동탑 십이지상	원원사지 서탑 십이지상
동면		
남면		
서면		
북면		
예탑 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Ⅲ』,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 246-247, 266-267에서 옮겨 재구성)

행법이 진행되는 전통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십이지는 시간과 방위의 신으로 왕릉 호 석이나 석탑 기단부에 조각되는 예가 많은데, 〈원원사탑〉에서는 이러한 십이지 도상의 기본적인 미에 더하여 예탑의식의 방법과 절차를 암시하는 지표로서 그 색다른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신중상이 지시하는 대상은 사리처럼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중상은 수행이나 예참 등 외부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장면을 가리킨다. 특히 이 상들은 탑이나 석굴의 예경이나 참배와 연관된 효용을 기대하고 채택되었을 것이다. 상의 효용이나 효과는 도상의 사전적인 뜻에서 처음부터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개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전 속에서 신중은 설법의 청중으로서 등장하거나 청법자나 참배자의 조인자·협력자로서 반복적으로 서술된다. 예를 들어 금강역사는 8세기초 번역의 『大寶積經』에서 “밀적금강역사는 현겁의 모든 여래를 공양하고 바른 법의 경전을 수호하여 받아 지니고 한량없는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케 한다”고 하였다.<sup>52</sup> 사천왕도 제석천과 함께 불자들을 수호하거나 조언해 주는 조력자로서 이해되었음을 여러 경전과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7세기 중엽에 번역된 『陀羅尼集經』에서 “사천왕의 像身을 만들고 四天王通心印呪를 외우면 사천왕이 환희하며 은혜를 내려준다”고 하였으며, 만일 眞言을 십만 번 외우면 “병을 치료하거나 돈과 재산을 얻을 것”이라고도 하였다.<sup>53</sup>

경전에서 드러나는 신중의 역할이나 이미지들은 상의 직접적인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고, 완성된 상을 보는 신도들 또한 경전 속에 서술되는 신중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sup>54</sup> 讀經과 講經, 禮佛과 禮塔이 사찰의 경내에서 늘 이루어졌음은 몇몇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三國遺事』臺山五萬眞身條의 기록이나<sup>55</sup> 圓仁(794~864)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나오는 赤山法華院 관련 기록 등에 따르면 신라 하대에는 많은 불교경전을 널리 讀誦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이에 따르면 적산법화원에서는 일상적인 예불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특히 아침 예불은 寅時에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원원사탑〉 동면의 寅像에서 예탑이 시작되고 북면 丑像에서 끝나는 절차가 연상되기도 한다. 한편 최치원의 〈崇福寺碑〉에서도 六時 禮佛에 대해 언급하였으며,<sup>57</sup>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條에는 해마다 興輪寺의 塼塔을 도는 탑돌이[福會] 의례가 있었다고 하였다.<sup>58</sup>

<sup>52</sup> 『大寶積經』 권12 (T.11-310, p. 68上).

<sup>53</sup> 『陀羅尼集經』 제11권 (T.18-901, p. 879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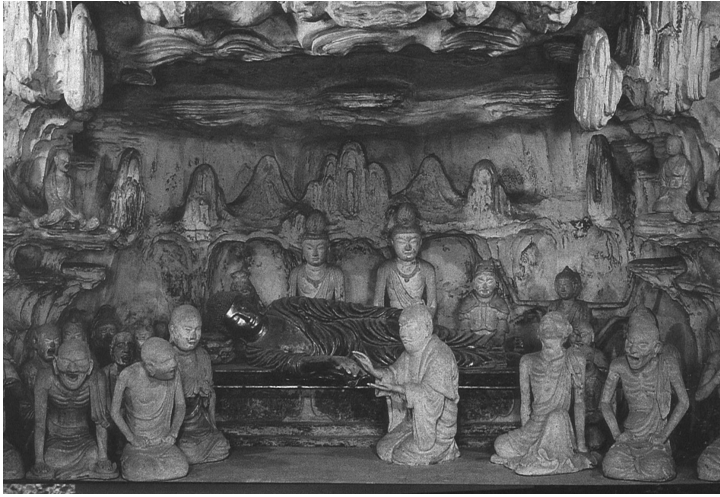
<sup>54</sup> 경전에 서술된 신중의 문헌적 개념이 신중상의 의미작용에 관여한다는 주장은 한재원, 「석굴암 전실 팔부중상의 상징과 해석」, 『미술사연구』 29 (2015), p. 160에서 제기되었다.

<sup>55</sup> 『삼국유사』 탑상 제4 臺山五萬眞身條에 8세기초 淨神大王의 태자 寶川이 “蔚珍國 掌天窟에서 隨求陀羅尼經을 의우는 것을 밤낮의 일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不空이 『수구다라니경』을 한역한 것은 8세기 후반이므로 실질적인 誦經의 유행은 신라 하대 이후였을 것이다. 옥나영, 「新羅時代 密教經典의 流通과 그 影響」,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7), pp. 179-183.

<sup>56</sup> 신라 적산원에서는 여름에 『금광명경』, 겨울에는 『법화경』을 읽었다. 『入唐求法巡禮行記』 839년 11월 16일; 엔닌, 김문경 역주,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pp. 178-180; 박광연, 「統一新羅의 法華信仰과 불교 문화」, 『한국사연구』 150 (2010), p. 95.

<sup>57</sup> 崔致遠, 「大崇福寺碑銘」 “중생을 창도하는 것은 6시로 예불을 하며, 玉磬을 울리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것은 만겁토록 하늘의 별이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唱導則六時玉振 金磬而玉振也 修持則萬劫珠聯持戒之法 如聯珠而不絕).”

<sup>58</sup> 『삼국유사』 感通 제7 金現感虎.



도 12 불열반상, 五重塔 북면 소조상, 8세기, 일본 法隆寺(조은정, 『조각 감상법』, 대원사, 2008, p. 99)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신행을 거친 불교도들에게는 경전에서 드러난 신중의 이미지와 예불·예탑의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신중의 이미지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경전에서 서술되는 구체적인 說法場의 장면이나 會衆의 모습이 독경과 강경 또는 誦經의 과정을 통하여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고, 의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法隆寺 五重塔 북면 불열반상의 塑造像群 중에서 슬퍼하는 불제자상과 팔부중상을 보는 참배자들이 경전에 묘사된 석가모니 입멸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sup>59</sup> 여기에서 울부짖는 불제자상과 이와 반대로 격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한 追悼의 표정을 한 보살상과 이수라·건달바 등 팔부중상은 열반장이라는 특정 장면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도 12).<sup>60</sup>

팔부중은 『法華經』, 『隨求陀羅尼經』 등 수많은 대승경전 속에서 설법 청중으로 나온다. 따라서 9세기 이후 많이 조성된 팔부중상은 會衆이라는 의미가 매우 뚜렷하게 담긴 신중상이다.<sup>61</sup>

<sup>59</sup> 조은정, 「종교적 감정교양을 위한 연극적 장치, 범룡사 오중탑 소조상에 대한 연구」, 『미술·문화·이론』 제3집 (2012), pp. 116-117.

<sup>60</sup> 五重塔 北面 塑像 가운데 7구의 비구상은 나중에 추가로 놓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그럴 경우라도 涅槃場의 실감나는 연출을 위해 이 상들을 배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町田甲一, 「法隆寺塔本塑像中の第一次 追加像について」, 『佛教藝術』 48 (仏教芸術学会, 1962), pp. 92-98.

<sup>61</sup> 한재원,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연구」, 『미술사연구』 20 (2006), pp. 228-229.

달리 말하면 석탑부조 팔부중상은 설법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野壇法席’으로 더욱 확장된 의례 또는 예배 장소를 지시하는 전형적인 지표였다고 볼 수 있다. 금강역사, 사천왕, 팔부중 등 경전 속의 신중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그 상이 조형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전제가 된다. 신중상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중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현실 공간에 구현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 과정 속에서 활용하기 위함에 있었다.

#### IV. 場所의 완성

석굴암 전실을 둘러싼 팔부중상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중간적 존재이다.<sup>62</sup> 그리고 석굴암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은 참배자에게는 계율의 수호자, 그리고 냉엄한 감시자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도 13). 경전에 익숙한 불교도들의 지식의 틀 속에서 금강역사와 사천왕은 마라의 세 딸을 꾸짖거나 외도 니건자에게 호통치며, 제석천의 명을 받아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감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석굴암 전실에서 불교도들은 의례와 참배를 실천했고,<sup>63</sup> 그 과정에서 이들은 팔부중,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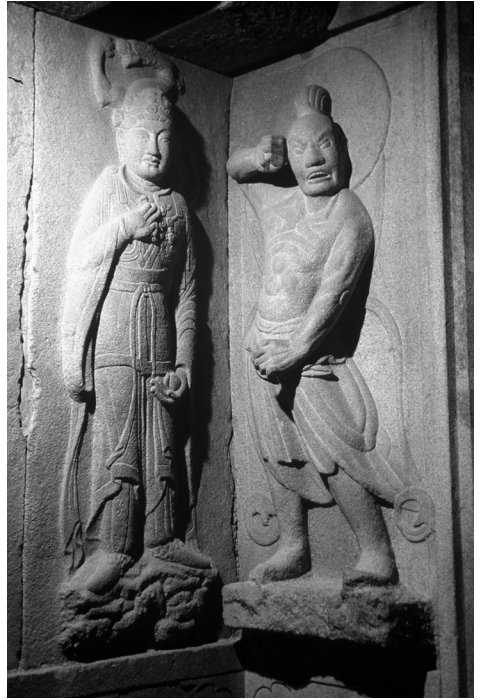


도 13 석굴암 금강역사와 사천왕, 8세기 중반, 경상북도 경주  
(경주시 관광자원 영상이미지)

<sup>62</sup> 한재원, 「석굴암 전실 팔부중상의 상징과 해석」(2015), pp. 161-163.

<sup>63</sup> 강희정, 「禮敬과 善業을 위하여: 繞을 위한 塔과 像」,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pp. 142-165; 임남수, 「고대 한국 佛殿의 기능과 형식」, 『美術史學』 25 (2011), pp. 303-330에서 석굴암 공간의 의례적 성격에 대해 논구하였다.

강역사, 사천왕의 시선과 마주하게 된다(도 14). 이 의례의 과정에서 四部大衆과 팔부중은 서로 어우러지며 성스러운 설법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곳은 마치 『화엄경』 80권본 十定品에서 묘사되듯이, “보살이 삼매를 얻을 때 모든 천왕이 예배하고, 용왕은 향기구름을 일으키고, 야차왕이 절하고, 아수라왕은 공경하고 공양하며, 가루라왕은 옹호하고, 긴나라왕과 마후라가왕이 칭찬하고, 건달바왕은 친근한다.”<sup>64</sup> 또한 그곳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인간)과 신중이 만나 교감하고 접촉하는 장소가 되었다.<sup>65</sup> 경전에 묘사된 신중상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석굴암 전실의 팔부중상은 붓다의 설법장에 모여든 청중의 일부이며, 신행과 수행의 과정에서 불자들과 感通하는 상상의 존재들이다.<sup>66</sup> 여기서 팔부중상은 금강역사나 사천왕, 십이지 등 다른 신중상들과 마찬가지로 설법의 장면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도 14 석굴암 용상과 금강역사상, 8세기 중반, 경상북도 경주(경주시 관광자원 영상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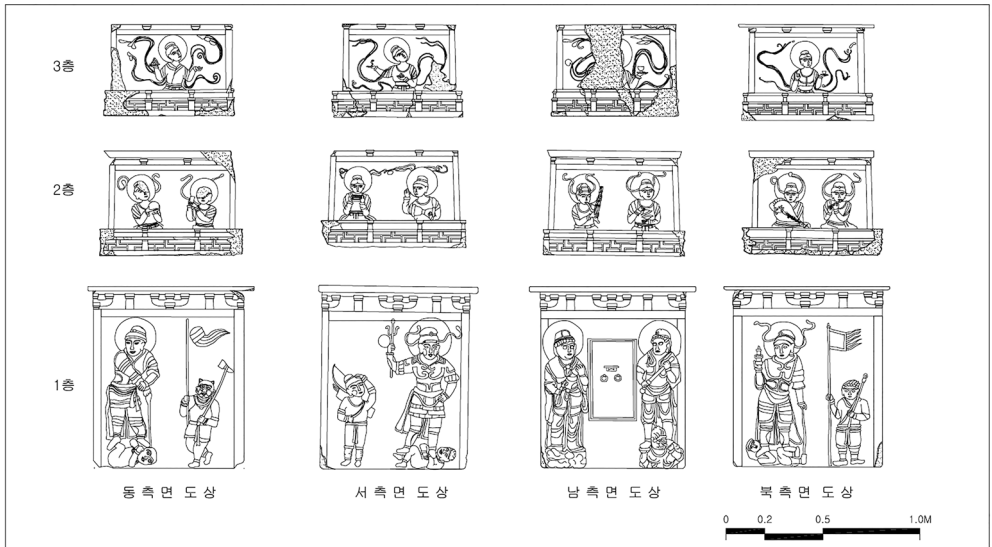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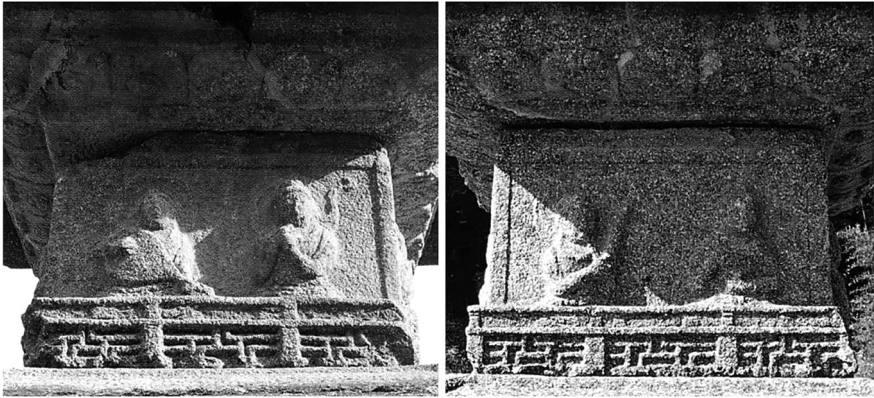
한국 신중상의 조합은 탑에 공양하고 시위하는 존재, 伎樂과 같은 의례 과정을 나타내는 도상임을 신라 하대의 석탑이나 승탑의 다양한 부조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에는 화려한 난간을 앞에 두고 拍板, 腰鼓, 笙簧, 銅鉢, 鄉琵琶, 橫笛 등을 연주하는 주악천인이 새겨졌다(도 15).<sup>67</sup>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기단부에도 唐琵琶와 笙, 요고와 피리,

64 『大方廣佛華嚴經』(80권본) 제40권 十定品 (T.10-279, p. 216下).

65 『大方廣佛華嚴經』(80권본) 제40권 十定品 (T.10-279, p. 219上); 『大方廣佛華嚴經』(60권본) 제7권 賢首菩薩品 (T.9-278, p. 439上).

66 예배자의 ‘감동’ 또는 ‘감응’이 像의 중요한 효용으로써 의도되었음은 중국 양무제의 無遮大會나 수문제의 사리부영 의식 등 塔像儀禮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추정된다. 소현숙, 「梁武帝와 隋文帝의 塔像儀禮와 佛教의 ‘教化’ 政治 - 懺悔와 受戒, 그리고 感應과 滅罪의 과정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90·291 (2016), pp. 151-173.

67 황미연, 「石造物에 나타난 奏樂像에 關한 研究: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을 中心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집』 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0), pp. 619-623.



도 15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부조상, 9세기, 전라북도 남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의 석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pp. 22, 33)

排簫와 동발, 횡적과 篋篥 등 현악기와 관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들이 배치되었다. 각 기단 면 석 양쪽의 두 주악천 사이에는 춤을 추거나 공양을 하는 천인상까지 배치되어 불교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례적인 공연이 조각으로 재현되었다(도 16).<sup>68</sup> 신라 석탑의 팔부중 가운데 공후를 연주하는 건달바상이 8세기 석탑 부조상에서는 조각되지 않다가 9세기 이후 석탑에 조

<sup>68</sup> 송방승, 『華嚴寺 三層石塔의 奏樂像』, 『한국학보』 28 (일지사, 2002), p. 108; 황미연, 『통일신라시대 주악상에 관한 고찰』, 『낭만음악』 (1996), p. 37에서는 생황, 향비파, 요고, 공후, 횡적으로 판독했다.

각되는 것은<sup>69</sup> 이 시기에 이르러 불탑의 예배와 의례적 기능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처럼 탑 부조상에 묘사된 신중상의 자세, 그리고 그들이 취한 樂器와 공양물들은 고대 불교 의식의 장면들을 실감나게 재현하는 요소들이다. 노래하고 춤추는 歌舞 공양과 악기 연주 등이 실제 불교의식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말이다. 『법화경』 見寶塔品에서 팔부중이 기악을 연주하며 보탑에 공양하였다는 서술이나,<sup>70</sup> 化城喻品에서 사천왕이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하늘복을 올리고, 諸天이 하늘기악을 올렸다는 설명을 보면 신중은 가무 의식을 이끄는 존재로도 인식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71</sup>



도 16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기단부 부조상과 도면, 9세기, 전라남도 구례(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의 석탑』, 2005, p. 67)

<sup>69</sup> 조석연, 「공후의 기원과 동북아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사논문 (2007), pp. 151-163 에 한국 석탑에 보이는 공후 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9세기 건립마상이 든 공후는 'L자형 공후'로서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

<sup>70</sup> 『妙法蓮華經』 見寶塔品 (T.9-262, p. 32中).

<sup>71</sup> 『妙法蓮華經』 化城喻品 (T.9-262, p. 22中下).



도 17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 기단부 공양천·주악천인상과 가릉빈가상(탁본), 883년, 경상북도 문경



도 18 법주사 사천왕 석등, 8세기 중반,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이밖에 9세기 이후 僧塔에도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의 신중상이 다수 조성되었다. 그 가운데 883년 조성된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을 살펴보면 중대석에는 주악천인상과 보주를 든 蓮花座 천인상이 배치되었다(도 17). 또 중대석 받침에는 가릉빈가상이 조각되었는데 이들 역시 춤추거나 갖가지 악기를 연주한다. 이러한 승탑 중대석 등에 보이는 歌舞樂像들은 극

락왕생을 염원하면서 시행되었던 공양 의식의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sup>72</sup>

신중상은 석탑과 승탑 뿐만 아니라 石燈의 화사석에도 조각된다. 통일신라의 <법주사 사천왕 석등> 화사석의 천왕상은 사리 수호나 호국불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화창 안에는 숨리 같은 것을 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도 18). 석등의 사천왕은 이들이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광명을 놓은 존재였다는 몇몇 경전 내용에 근거한 상징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증일아함경』과 『사분율』에는 사천왕이 부처의 설법을 들을 때 큰 光明을 발산하였다고 설명되었다.

<sup>72</sup> 김성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의 주악상」, 『도상을 통해 본 통일신라음악 연구』(민족사, 2016), pp. 92-115.

그 때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돌집으로 돌아와 쉬고 계셨다. 그 날 밤에 사천왕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經法을 들었다. 사천왕들에게도 큰 광명이 발산하였고 부처님께서도 또 큰 광명을 놓아 그 산과 들을 환하게 비추어 똑같은 빛으로 밝게 하였다. 그 때 저 가섭도 밤에 그 광명을 보았다. 그는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세존께 나아가 아뢰었다. “어제 밤에 어떤 광명이 이 산과 들을 비추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사천왕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법을 들었다. 그 광명은 저 사천왕들의 광명이었다.”<sup>73</sup>

그 때에 부처님께서 가섭의 음식을 받으신 뒤에 본래의 숲으로 돌아가셔서 쉬시었는데 그날 밤에 사천왕이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법을 듣고 공양하려 하였다. 밤이 어두웠을 때 광명을 놓아 사방을 비치니, 마치 큰 불덩이와 같았다. 그들은 모두가 합장하고 부처님의 발에 예배한 뒤에 그 앞에서 있었다. 가섭이 밤에 일어나서 보니, 그 숲에 큰 광명이 있어 사방을 비침이 마치 큰 불덩이와 같았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다시 부처님께 가서 사뢰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사천왕이 공양거리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법을 듣고자 하였다. 그 광명이 사방을 비친 것이요, 불이 아니었느니라.<sup>74</sup>

이와 같은 구절로 미루어 보면 결국 도량석의 無明을 밝히는 석등은 부처의 설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상징이며, 그 위에 부조된 사천왕은 그 광명이 사방으로 발산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敘事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팔부중, 금강역사, 사천왕이 새겨진 석굴암과 석조물이 있는 사찰의 境內는 참배자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장소이며 연출된 공간이다. 이 신중상들은 특별한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지표로서 제시된 상이며, 따라서 그들의 명칭이나 정체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원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신중상의 배치와 조성은 상과 예배자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장소를 완성하기 위한 조형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sup>73</sup> “是時世尊食已還石室止宿。即夜四天王至世尊所而聽經法。四天王亦有光明佛亦大放光照彼山野洞然一色。時彼迦葉夜見光明。明日清旦至世尊所。到已白世尊曰。昨夜是何光明照此山野。世尊告曰。昨夜四天王來至我所而聽法。是彼四天王之光明。”『增一阿含經』 권15(T.2-125, p. 621上).

<sup>74</sup> “時世尊食迦葉食已。還詣本林止宿。其夜四天王。持供養具來詣世尊所皆欲聞法供養。夜暗時放光明照四方。猶如大火聚。合掌禮如來足已在前而住。時迦葉夜起。見彼林有大光明照四方如大火聚。明日清旦。往如來所自言。… 佛告迦葉。昨夜四天王。持供養具來詣我所。欲聽受法。是其光明照四方。非火也。”『四分律』 권32 受戒韃度之二 (T.22-1428, p. 794中).

## V. 맺음말

한국 고대 신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 동안 탑 내부의 사리나 殿閣의 본존상과 연계된 유물의 구조 속에서만 그 의미가 고찰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본고에서는 관점을 전환하여 신중상이 새겨진 유물은 내부로 닫힌 폐쇄적 구조가 아닌 예배자를 향해 열린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분황사탑>과 <원원사탑>의 부조상들을 禮拜와 儀式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으로 해석해 본 것도 禮敬者 또는 觀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종교미술의 조성은 신앙행위 속에서 활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예배나 의식(의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불상이나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석탑이나 석굴의 다양한 신중상도 유적지를 방문한 관람자가 아닌 설법장에서 경배하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다(도 19).



도 19 석굴암 참배 장면, 일제 강점기 사진(繪葉書)(성낙주, 『석굴암 백년의 빛』,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p. 155)

신중상은 수행이나 신앙 행위 속에서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특히 예경이나 참배와 연관된 지표적 기능을 담은 상으로 이해하였다.

한국 고대 신중상은 사리나 부처(佛法)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석조물에 존경과 공양의 의미로 조성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 글에서는 예배 대상과 예배자를 이어주는 신중상의 轉移的 성격을 다시 조망해 보았다. 종교미술은 신앙과 무관한 제3자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불교신자 또는 종교적 참배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그 조성 배경과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의례가 베풀어지는 공간에 신중상이 더해져서 그들이 등장하던 경전 속 가상의 이야기와 장면들이 현실의 한 장소에서 조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이 한국 고대 신중상에 담긴 본래 의미이며, 예배자에게 주는 효용이다.

\*주제어(key words) 신중상(神衆像, the Guardian Deity Assemblies), 금강역사(金剛力士, the Vajrapanis), 사천왕(四天王, the Four Heavenly Kings), 사분율(四分律, the Four Division Vinaya), 지표(指標, index), 장면(場面, scene)

▣ 투고일 2019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19일 ▣

## 참고문헌

### 1. 經典·史書

- 『金光明經』,  
『陀羅尼集經』,  
『大般涅槃經』,  
『大方廣佛華嚴經』,  
『大方等大集經』,  
『大寶積經』,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大智度論』,  
『妙法蓮華經』,  
『佛本行經』,  
『四分律』,  
『雜阿含經』,  
『長阿含經』,  
『正法念處經』,  
『增一阿含經』,  
  
『高僧法顯傳』,  
『南海寄歸內法傳』,  
『大唐西域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高僧傳』,  
『入唐求法巡禮行記』.

### 2. 한국어 문헌

- 강우방, 『분황사의 금강역사상』,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강희정, 『禮敬과 善業을 위하여: 繞匝을 위한 塔과 像』,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_\_\_\_\_, 『경상북도의 석탑 Ⅲ』,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彌勒寺址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2012.
-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올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 권강미,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文物研究』7,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2003.
- 김보형, 『統一新羅 十二支像 圖像 研究 - 四天王寺址와 遠願寺 石塔浮彫를 中心으로 -』, 『회당학보』7, 2002.
- 김성혜, 『도상을 통해 본 통일신라음악 연구』, 민족사, 2016.
- 김영미, 『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 『한국고대사연구』72, 2013.
- 김정희, 『신장상』, 대원사, 1989.
-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17, 2010.
- \_\_\_\_\_, 『신라 佛塔의 형식과 금강역사 浮彫像 연구』, 『文物研究』27, 2014.
- 나가오카 류사쿠(長岡龍作), 『悔過와 불상』, 『美術史論壇』23, 2006.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84.
- 남동신,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한국사연구』7, 1992.
- \_\_\_\_\_, 『慈藏定律과 四分律』, 『佛敎文化研究』4, 靈鷲佛敎文化研究院, 1995.
- 문명태, 『韓國塔浮彫像의 研究(1)-新羅仁王像(金剛力士像)考-』, 『불교미술』4, 1979.
- \_\_\_\_\_, 『韓國四天王像의 研究: 韓國塔浮彫像의 研究(2)』, 『불교미술』5, 1980.
-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41, 2013.
- 박광연, 『統一新羅의 法華信仰과 불교 문화』, 『한국사연구』150, 2010.
- 박대남,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분황사성격 고찰』, 『한국고대사탐구』3, 2009.
- 백남주, 『金剛力士像의 成立과 展開』, 『미술사학연구』208, 1995.
- 소현숙, 『梁武帝와 隋文帝의 塔像儀禮와 佛敎的 教化 政治 - 懺悔와 受戒, 그리고 感應과 滅罪의 過程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90·291, 2016.
-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23, 2009.
-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미술사학연구』216, 1997.
- \_\_\_\_\_, 『사천왕 갑옷의 의미 재고』, 『미술사학보』42, 2014.
-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신라사학보』35, 2015.
- 옥나영, 『新羅時代 密敎經典의 流通과 그 影響』,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17.
- 윤보운, 『佛敎敍事에 나타난 超越의 助力者의 研究』, 『불교문화연구』7, 2006.
- 이자랑, 『울장의 불탑 기술에 관한 일고찰』, 『佛敎研究』43, 2015.
- 이희봉, 『신라 분황사탑의 模塼石塔說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찰』, 『건축역사연구』제20권 2호, 2011.
- 임남수, 『고대 한국 佛殿의 기능과 형식』, 『美術史學』25, 2011.
- 임영애, 『인도와 간다라의 집금강신(執金剛神)』, 『강좌미술사』29, 2007.
- \_\_\_\_\_, 『中國 石窟의 金剛力士』, 『강좌미술사』32, 2009.
- \_\_\_\_\_, 『신라 불탑 탑신(塔身) 부조상의 추이 -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선사와 고대』35, 2011.

- 장충식, 「統一新羅 石塔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154·155, 1982.
- 조석연, 「공후의 기원과 동북아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사논문, 2007.
- 조원영,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釜山史學』40·41, 2001.
- 조은정, 「종교적 감정고양을 위한 연극적 장치, 법륜사 오중탑 소조상에 대한 연구」, 『미술·문화·이론』3, 2012.
- 주경미,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도서출판 예경, 2007.
- \_\_\_\_\_, 「신라 중대 불사리장엄의 다양성과 문화사적 의의」, 『한국고대사탐구』23, 2016.
- 주수원, 『솔도파의 작은 거인들』, 다할미디어, 2012.
- 한재원, 「통일신라 석탑부조 팔부중 도상과 배치 연구」, 『미술사연구』20, 2006.
- \_\_\_\_\_, 「석굴암 전실 팔부중상의 상징과 해석」, 『미술사연구』29, 2015.
- \_\_\_\_\_, 「한국 고대 신중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18.
- 허형욱, 「통일신라 석탑 부조상의 종류와 구성」,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 3. 동양어 문헌

- 奈良國立博物館·東大寺,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 奈良六大寺大觀刊行會, 『奈良六大寺大觀』2, 岩波書店, 1968.
- 朴亨國 外, 『韓國の浮屠研彙の佛教集合尊像(四佛·五大明王·四天王·八部衆)に關する總合調査』, 平成16年度~平成1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 海外學術研究成果報告書, 武藏野美術大學, 2008.
- 松田誠一郎, 「菩薩像·神將像の意匠形式の展開」, 『東大寺と平城京: 奈良の建築·彫刻』日本美術全集 4, 講談社, 1990.
- 張廣敏雄, 「五重塔の塑像」, 『奈良の寺』4 法隆寺, 岩波書店, 1974.
- 倉田文作, 「東大寺の塑像」, 『東大寺 法華堂と戒壇院の塑像』, 岩波書店, 1973.

### 4.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 대정신수대장경 <http://21dzk.l.u-tokyo.ac.jp/SAT>
-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 한글대장경 <https://abc.dongguk.edu/ebti/index.jsp>

## 국문초록

한국 고대 神衆像에 관한 이 글은 金剛力士, 四天王, 八部衆이 누구인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에서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신중상의 무장한 모습, 갈라진 근육과 험상궂은 인상은 샅된 무리로부터 佛法과 舍利를 지키는 역할을 표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할 불교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는 탑을 수호하는 신이자 계율을 지키는 持戒의 상징체로서 해석할 수 있다. 〈원원사지 석탑〉의 사천왕상 역시 중생들의 戒行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이해된다. 한편 〈원원사지 석탑〉의 十二支像은 동면에서 북면에 이르기까지(寅像~子像) 모두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만 북면의 丑像만은 시선을 왼쪽으로 돌렸다. 이 십이지상은 탑돌이의 방향과 끝나는 지점을 암시하는 指標로서 조성된 것이다.

석탑과 석굴의 팔부중상 표현도 경전 속 가상의 '場面'을 재현하려는 조형의지의 결과물이다. 석등의 사천왕상은 그들이 부처의 설법을 들었을 때 光明을 발산했다는 이야기를 指示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석탑, 석굴, 승탑, 석등에 신중상이 부조되어 그들이 등장하던 경전 서사와 장면들이 현실의 한 장소에서 시각적·촉각적으로 완성되었다. 의례와 수행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장소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적 역할이 한국 신중상에 담긴 본래 의미이며, 이 지표에 의해 예배자들은 감응하고 참회하며 發心하게 된다.

## The Cultural Significance and Functions of Guardian Deity Assemblies of Ancient Korea

Han, Jae-w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not to identify the Vajrapanis, the Four Heavenly Kings, and the Eight Classes of Divine Beings, but to understand why they stand where they are. The armed Guardian Deities with their large muscles and menacing expressions act primarily as protectors of the Buddhist religion and *sarira* from evils but their another role is to intimidate the faithful to adhere to religious precepts.

The Vajrapanis on the Stone Pagoda from Bunhwangsa Temple may be interpreted as the guardians of the pagoda who monitor the keeping of Buddhist teachings. The Four Heavenly Kings on the Stone Pagoda from Wonwonsa Temple site are also symbolic guards who oversee how the laymen observe the rules of the Buddhist religion. On the lower storey of the pagoda, the twelve zodiacal animal deities adorn the sides starting from the east side, to finish on the north side, all look to the right, except the ox on the north who look to the left. These deities were carved to serve as reminders to directions and an end point for *tapdori*(circling the pagoda) rituals.

The Eight Classes of stone pagodas or Seokguram Grotto were arranged to recreate imaginary scenes in the religious texts, and the Four Heavenly Kings on stone lanterns symbolize the narrative that they radiated light when hearing Buddha's sermons. Many pagodas, Seokguram, and stone lanterns were decorated with guardian deities to complete the narratives of texts and scenes in real life as visual and tangible. The original function of guardian deities in Korean Buddhist Art were to function as indexes for religious venue where rites were held and Buddhist teachings were learned, and to lead the faithful to religious sensitivity, repentance, and spiritual awakening.

---

\* Connoisseu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